제3세계에 인권·평화 심는 '5·18 세계화' 첨병

〈목 차〉

제1부 되짚어 본 5·18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오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⑤ 윤장현 YMCA 전국연맹 이사장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를 앞으로도 5월 단체가 주관한다면 80년 5월은 우리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 5월 단체와 광주 시민만이 기념한다면 5·18의 전국화, 세계화는 요원한 길이다." 광주의 인권·평화운동을 이끌고 있는 윤장현(61·아이안과 원장)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은 5·18 민중항쟁 30주년을 앞두고 "대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추모사업은 5월 단체가, 5월 정신 계승사업은 전문가 등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일반시민이 주축이 돼 분리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윤 이사장의 얘기다. 이를 통해 광주만의 5·18이 아닌 '5·18의 전국화·세계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 청년캠프·亞인권 선언대회 등 주도

"30돌 계승사업 일반시민 주축 추진해야"

◇대한민국의 섬(島) 광주 그리고 5·18=섬 사람들은 고립된 환경이지만 서로 정겹게 지낸다. 그들만의 문화와 생활방식에 익숙하다. 섬 밖을 동경하면서도 두려워한다. 섬 사람들은 외부인이 섬을 보는 눈초리나 말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쓴다.

윤 이사장은 "광주가 5·18이라는 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초석이 된 5·18을 광주 시민만이 끌어안고 있지 말고 국민에게 돌려주고, 나아가 지금도 국가폭력에 핍박받는 국가에 우리의 경험을 전수해야한다는 얘기다.

5·18의 전국화, 세계화가 곧 5월 정신을 잇는다는 것이 윤 이사장의 생각이다. 80년 5월을 초석으로 해 성장한 민주주의라는 열매를 광주만의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온 국민의 역사로 다시 쓰고, 민주 정부 수립에 목말라 있는 제 3세계 국가에 5·18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 5월 정신을 잇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다.

◇윤장현과 인권 그리고 평화=아시아인권위원회 이사,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공동대표 겸 광주전남 대표, 아시안 브릿지 대표,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 본업이 의사인 윤 이사장은 사람이 존중받고 평화로운 세상을 꿈꿨다. 우리나라와 북한, 아시아 국가 등 국경을 뛰어넘어 이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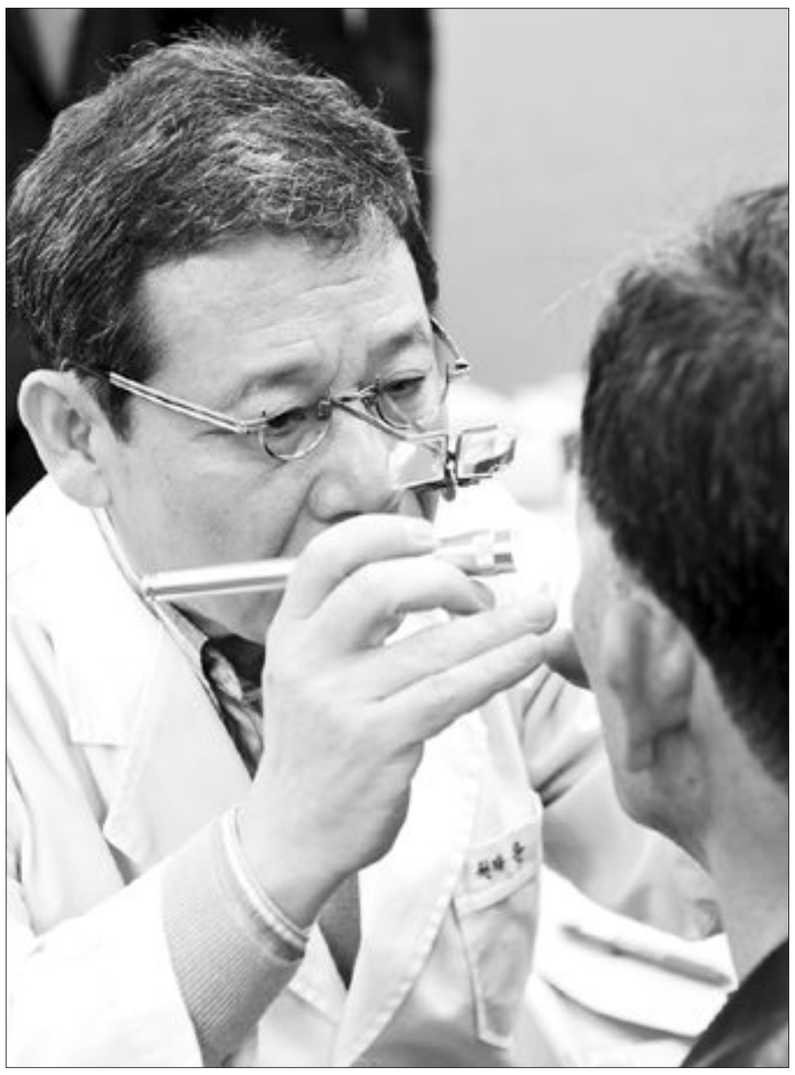
그는 오래전부터 국가로부터 억압받고 핍박받는 아시아 시민사회단체들을 돕고, 우리 동포인 북한주민을 인도적(人道的)인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윤 이사장은 아시아 국가의 시민사회단체를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원해왔다. 5·18 민중항쟁을 거쳐 민주화를 꽃피운 우리의 경험을 제 3세계 국가의 시민사회와 나눈 것이다.

지난 1996년 민주화를 열망하는 동티모르, 수단, 미얀마 등 아시아 21개 국가 60여개 단체를 초청, '광주 5월 정신 계승과 인권 평화를 위한 국제 청년캠프'를 여는가 하면 '해외에서 본 5·18 광주항쟁'(1993년), '반인륜 행위와 과거 청산'(1994년) 등을 주제로 심포지엄도 열었다. 지난 1998년에는 유엔 인권선언 50주년을 맞아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를 광주에서 개최, 아시아의 민주도시 광주를 널리 알리는 한편 80년 5월 광주 정신도 설명했다. 우리가 겪은 80년 5월, 그리고 이 땅의 민주화 과정을 그들에게 전수하는 게 곧 5·18의 세계화요,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이었다.

◇윤장현이 생각하는 5월="두말할 것 없이 5월 항쟁은 한국 현대사를 가르는 역사적 사건이다. 5월의 피를 먹고 가족의 죽음을 가슴에 묻고 온몸으로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군부독재 퇴진을 원했던 전국화된 5월 운동은 87년 6월항쟁으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군부통치를 종식하고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뤘다." 윤 이사장이 생각하는 5월 항쟁은 이렇게 요약된다. 망월동이 성역화되고 5월18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고 5월 영령은 유공자가 됐지만, 윤 이사장은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고 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심판대에 세우는 것과 함께 5·18 추모사업과 정신계승 사업으로 구분하고 추진하는 주체도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 추모 받아야할 5월 당사자들이 추모하는 중심이 되고 정신계승의 주체가 되면서 시민들은 저만치 물러나게 됐다는 판단에서다.

윤 이사장은 "30년은 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는 물론 경험한 세대에게도 5월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릴 수 있는 세월"이라며 "30주년을 앞두고 ▲5월 운동과 5월 단체 활동 ▲시민의 참여와 인식 ▲5·18의 전국화 세계화 등 모든 면에서 진정 어린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안과 의사인 윤장현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장이 광주시 동구의 한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일상속 불평등·비민주 해소 5월 공동체 정신 실천 나서자"

김기곤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생각을 듣게 되면 조금은 불편해질 때가 있다. 나와 학생들 사이의 인식 불일치가 간혹 느껴지기 때문이다. 5·18에 대한 부분도 그렇다. 나야 5·18 당시의 주변 현장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5·18을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걸어온 역사의 현장들을 직간접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5·18은 여전히 각별한 것이다.

그래서 5·18이 '과거'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90년이나 91년에 태어났다. 사람의 의식과 관심은 사회적 맥락과 문화적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30년 전의 5·18에 대해 무감각한 것도 학생들에게는 먼 역사이고, 살아온 환경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요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5·18 30주년을 앞둔 지금, 5·18의 '세대 간 단절'을 어떻게 다시 잇고, 무엇을 기억하고 계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80년 5·18은 민주주의를 압살하려는 폭력적 권력에 대항해, 개인의 실익보다는 공동체적 가치와 실천적인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지금도 이 가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5·18을 단지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지나간 사건으로 치부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억은 오히려 현재적 시점에서 재구성되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다. 그날의 공동체와 연대의 기억은 더 넓은 민주주의를 삶의 영역까지 작동시키기 위한 동력이다. 민주주의는 고정된 제도라기보다는 항상 새롭게 채우고 만들어가야 할 지속 과제이다.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차원의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삶이 보다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확장이 바로 5·18정신의 '세대 간 연계'를 매개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인 정치 영역도 마찬가지이지만, 구체적인 생활공간 역시 공동체와 연대의 정신과 배치되는 비민주적 방향으로 내달리고 있다. 곳곳에서 5·18과 광주정신이 쌓아온 성과를 허물고 있고, 일인 독주만을 찬양하는 자본의 논리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화려한 상품 이미지들은 다양한 삶의 가치와 주변의 목소리를 흡입해 버리고, 효율성과 경쟁의 논리는 우리에게 끝도 없는 트랙을 질주토록 강요하고 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권력의 문제, 불평등의 문제,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습의 문제 등을 30년 전 5·18이 보여준 공동체와 연대의 기억들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에 대한 새로운 질문이 필요할 것 같다. 얼마 전 자본의 논리에 잠식되어 가는 대학의 현실을 비판한 대자보를 쓰고, 학교를 떠났던 서울의 한 학생에게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정치가 무엇인가를 배운다.

'내가 싫으면 혼자 떠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공동의 문제로 전환해 '정치화'시켰던 것이다. 개인적인 것도 전체적인 것으로 바라보려는 그러한 정치적 실천이 5·18정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취해야 할 태도라는 생각을 해본다.

영/화/안/내

영화에빠지다

메가박스

M관	타이탄 (12세) 최고급관
2관	그린 존 (15세) / 타이탄 (12세)
3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4관	크레이지 (18세)
5관	(3D)타이탄 (12세)
6관	프로포즈데이 (12세) 서터 아일랜드 (15세)
7관	집 나온 남자들(15세)
8관	폭풍전야(18세)/ 육혈포 강도단 (15세)
9관	타이탄 (12세)

• 호남주차타워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구.런던외국사거리 ♡예매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폭풍전야 (18세) / 그린 존 (15세)
2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3관	프로포즈데이 (12세)
4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5관	집 나온 남자들(15세)
6관	(3D)타이탄 (12세)
7관	타이탄 (12세)
8관	크레이지 (18세)
9관	타이탄 (12세)
10관	타이탄 (12세)

3D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하남점 동시개봉!!

1588-7941 상담원연결 방법→(1번 or 2번)→0번

하미시네마

1관	레이징 피닉스(15세)/콜링 인 러브(15세)
2관	그린 존(15세)
3관	솔로몬 케인 (18세)
4관	의형제(15세)
5관	비밀애(18세)
6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전체)
7관	타이탄 (12세)
8관	타이탄 (12세)
9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10관	폭풍전야(18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무료) • 365 매일 심야
• 이동 통신사 & OK 캐쉬백 카드 할인 혜택
• 하미 수영장 269-5757 • 하미 볼링장 282-0925
• 하미 골프장 251-5060 • 하미 당구장

고객사랑 고객감동 • www.hamicinema.co.kr/ 1588-9120
전대후문 하미스포렉스 ☎ 267-7777

씨너스 전대

1관	프로포즈데이 (12세)
2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 그린 존 (15세)
3관	타이탄 (12세) / 서터 아일랜드 (15세)
4관	크레이지 (18세)
5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6관	(디지털 4K)타이탄 (12세)
7관	(3D)타이탄 (12세)

씨너스 전대 4월 1일 타이탄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쌔합했는 영화산책 • www.cirnus.co.kr/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타이탄 (12세)
2관	타이탄 (12세)
3관	집나온 남자들 (15세)
4관	반가운 살인자 (15세)
5관	육혈포 강도단 (15세)
6관	그린 존 (15세)

* 무료주차 3시간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대 • www.primuscinema.com/www.jeilcinema.co.kr •
중장로 3가 ♡ARS 전화예매 ☎ 227-1960♡